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5년도 표어

교회, 세상의 소망(벤전 2:9~12)

행동지침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반대파를 다룰 줄 아는 지도자(III)

(느헤미야 6장 1 - 14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느헤미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받은 과업을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악함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계략과 협박과 유언비어가 있어도 예루살렘 성 건축 과업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권을 바로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공포가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니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때 생깁니다.

느헤미야 4-5장에는 3종류의 반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느헤미야의 성 쌓는 일을 방해하려는 위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두 종류의 반대자들은 이방인들 즉 외적 위협이었고, 세 번째 사람들은 내적 반대파들이었습니다.

내적 반대는 부자에 대한 가난한 자들의 항거로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개인적 충고를 했지만 듣지 않으므로 공적인 자리로 끌어내어 회개케 했습니다. 그 결과 중단되었던 성 쌓는 일은 계속되었고 느헤미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공적으로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문들만은 아직 건축해야 할 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공사가 마쳐졌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또 하나의 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모사공과 비난하는 자와 협박자에 의한 반대였습니다. 이들은 매우 교활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지도자 느헤미야 개인에게 공격의 초점을 맞추려 했습니다.

### 1. 음모

반대자들은 교활한 것이 특징입니다. 1-4절을 보면 산발랏과 아랍인 계셈과 그 대적자들이 오노 평지에 느헤미야를 끌어내려고 다섯 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투와 의형적 청함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음모를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느헤미야의 공사를 방해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친구로 함께 지내고 총독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노 평지에서 회담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은 뜻은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살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성의 건축을 마치고 아직 성문을 다는 일이 남은 상태에서 반대자들은 그 일의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느헤미야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곧 너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3절).

지도자는 '아니오' 라는 말을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안전 문제, 다른 사람 비위 맞추기 위하여, 특별히 요구가 반복될 때 '아니오' 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4번씩이나 '아니오' 라고 말했습니다.

유능한 지도자, 성숙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악에 대해서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2절). 그러나 그들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오노 평지에 가기에 내가 너무 비싼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주제(issue)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 2. 유언비어

느헤미야가 4번을 거절하자 그들은 다섯 번째 종을 보내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에 대한 뜯소문이 지금 사방에 돌리는데 빨리 와서 함께 수습하자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닥사스다 왕의 모반자로 오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5-7절). 자기들이 퍼뜨린 유언비어를 자기들이 해결하겠다는 어이없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 (5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도중 많은 사람들에게 임혀짐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자 하는 목적에

서 보낸 편지입니다.

유언비어는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궁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가 오노 평지로 오라는 초청을 거절하면 그는 유언비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응하면 성 쌓는 일을 중단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목적달성의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고 결정적으로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8절에서 느헤미야 대답은 분명했고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이것은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들의 악한 행위가 왜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 역사를 중단시켜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말을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내 손에 힘을 주소서" (9절). 이 같은 내적 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 3. 협박(궁갈)

그들은 느헤미야 친구 스마야(10절)를 매수하여 느헤미야를 성전에 가두려는 계략을 꾸밉니다(10-14절). 스마야는 두문불출함으로 느헤미야의 관심을 산 후 그를 성전으로 끌고 들어가 함정에 빠뜨리려 했으나 느헤미야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소에 숨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자기 목숨만 부지하자고 도망가는 일은 합당치 않다고 거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13절). 그는 하나님은 스마야를 보내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스마야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느헤미야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뜨림으로써가 아니고 지킴으로써 얻은 것입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성공한 것은 지도자로서 그가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이며 기도생활을 철저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기도를 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받은 과업을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악함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계략과 협박과 유언비어가 있어도 예루살렘 성 건축 과업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권을 바로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공포가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니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때 생깁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선권을 바로 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성경필사 신청 오늘 마감

## 6월6일 당회원들을 필두로 필사개시

홍해작전 개시일인 6월 6일 오전 7시 만나홀에서 명예·은퇴장로, 당회원, 교역자, 무지개회원, 교회학교(중·고·대·청부) 회장 등이 참석하여 감사예배를 드리고 성경필사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말씀을 사랑하는 1717명의 서울교회 성도들이 참여하여 헌당기념으로 제작하는 『서울 암송·필사 성경』은 오는 8월 15일까지 2권의 원본 필사를 끝내고 아름답게 제본하여 헌당예배 시 봉헌한다. 그 초대판은 한정 제작하여 세계 유명도서관에 그 취지와 함께 발송하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배포 한다. 6월 6일에는 감사예배 후 성경 66권의 1면과 2면을 이중운 목사를 비롯한 당회원, 교역자들이 동시에 필사 한다.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해 신청하고 참여하는 성도들은 먼저 시간을 배정받고 시작 10분전까지 802호와 202호 입구에서 해당면의 주요 구절의 암송을 확인받고 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은 후, 끼운을 입고 입실하여 감수위원의 도움을 받

아 한 면을 두 번 필사하게 되는데 대략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소요된다.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원고와 동일한 크기의 연습지를 510호(교구간사실)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 바란다.

원고 원본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감수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실수하여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득이 원고 원본이 재 제작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필사해야 함을 유의하기 바란다. 위원회(위원장 김세재 장로)는 오는 6월 3일 금요일기도회를 교구 연합 다락방으로 101호에서 본 행사 신청자들이 함께 모여서 홍해작전의 승리와 후대에 길이 남을 필사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필사 참여 예정자들은 이날 전원 참가해 주시기 바란다.

각 교구 및 교회학교 별 참여 인원은 아래와 같다.

### 교구 및 교회학교 별 참여인원/담당범위

소 속	참여인원	담당범위	소 속	참여인원	담당범위
1교구	270명(5x2, 1)	구약 1-281	8교구	45명 (1x2, 0)	구약 892-938
2교구	120명(4x2, 3)	구약 282-412	9교구	90명 (3x2, 2)	구약 939-1036
3교구	95명 (2x2, 1)	구약 413-512	10교구	35명 (1x2, 0)	구약 1037-1073
4교구	65명 (1x2, 1)	구약 513-580	11교구	70명 (1x1, 1)	구약 1074-1146
5교구	85명 (2x2, 1)	구약 581-670	12교구	100명(2x2, 0)	구약 1147-1250
6교구	45명 (1x2, 1)	구약 671-718	13교구	225명(16x2,6)	구약 1251-신약182
7교구	60명 (3x2, 1)	구약 719-785	14교구	90명 (3x2, 2)	신약 183-280
고등부	30명 (1x2, 0)	구약 786-817	중등부	59명 (12x2, 3)	신약 281-366
청년부	63명 (0, 0)	구약 818-880	대학부	40명 (7x2, 3)	신약 367-423

\*66권의 1-2면은 당회원, 교역자, 무지개회원, 위원회 임원들이 6월6일 필사하므로 제외됨.

한편 위원회는 동 기간 중 필사의 진행을 돕고 감수하는 감수위원과 원본에 쪽수, 성경, 장, 절 등을 표시하여 원본 원고를 만드는 필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였다.

\*감수위원: 각 교구 간사 전원, 석춘희, 양미숙, 박성금, 한명순, 정유선, 고정숙, 소선자, 채경희, 김경희, 공진문,

정연택, 김치순, 정희순, 이형희, 김명순, 김미성, 김보경, 김희순, 이경희, 최봉희, 김일순, 양정실, 김명순, 이미숙, 박현영, 하 숙, 김신영, 최정인, 차도훈, 장 덕, 이승우, 이남성, 오유식, 이현주

\*필사위원: 이승선장로, 김태기장로, 임송자권사, 서춘식, 김시환, 김병용, 최규초, 정종식, 배영자, 김민희, 김용호, 양호경, 김현숙, 김익환

## 제13차 김치신학세미나로 열리는 세계개혁신학회는?

13차 KIMCHI 신학세미나가 오는 7월5일부터 10일까지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금번 KIMCHI 세미나는 “다원적이며 국제적인 세계에서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주제로, 세계개혁 신학회 제6차 회의를 한국교회 갱신 연구원이 후원함으로 한국에서 갖게 되었다.

네덜란드, 미국, 독일, 영국, 헝가리, 호주, 남아공화국, 인도네시아, 케냐,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100여명의 신학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세계개혁신학회를 알아본다.

세계개혁신학회(회장 아브라함 반 드베크 Abraham Van de Beek)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혁신학자들을 연결하여 각각의 다른 정황 속에 있는 개혁신학자들의 연구를 상호 진작시키고 서로 도우며 사상을 나누도록 하기위한 개혁신학자들의 네트워크이다.

세계개혁신학회는 화란의 아브라함 반 드베크 교수를 중심

으로 한 일단의 개혁신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어 1995년 헝가리에서 ‘자유(freedom)’라는 주제로 제1차 세계대회를 시작한 이래 화란의 자유대학교에 본부를 두고 2년에 한 번씩 세계대회를 열어, 1997년에는 South Africa에서 ‘교회와 사역 (Church & Ministry)’이라는 주제로 1999년에는 화란의 우트레흐트에서 ‘상황 속에서의 기독교적 희망(Christian Hope In Context)’이라는 주제로, 2001년에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앙과 민족(Faith & Ethnicity)’이라는 주제로, 2003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신앙과 폭력(Christian Faith & Violence)’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올해는 한국에서 제6차 세계대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번 대회는 세계개혁신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장로교신학회(회장 이중운 목사)와 한국 개혁신학회가 주관하며 서울교회의 김치(KIMCHI, 한국교회갱신연구원)가 후원한다.

## 2005 홍해작전 다양한 계획으로 준비 중

2005 홍해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홍해작전 준비위원회(참모장:김영준 장로)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홍해작전에 참여하여 우리 앞에 닥친 홍해를 건너도록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 하고 있다.

먼저, 홍해작전 기간 중 4행시를 지어 응모하는 이벤트를 마련하며, 8층 만나홀에서는 주일 점심시간에 맞춰 그주에 있었던 홍해 작전의 스틸장면과 예배의 이모저모를 빔 프로젝트로 방영할 예정이다.

응모된 4행시는 1층 사무국 앞 옹모함에 모아 홍해작전이 끝난 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뽑아 시상 할 예정이다.

(예) 4행시 (5교구 김시환 집사)

홍: 홍해작전이 시작되다  
해: 해도 해도 안되는 일  
작: 작심하고 기도하여  
전: 전성도들이 승리합니다.

## 수요 어린이 미술잔치 개최

6월15일(수) 오후5시 한티공원에서

수요어린이 예배부에서는 6월15일(수) 오후5시 한티공원에서 어린이 미술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교회에 다니는 5살부터 6학년까지의 유, 초등부 어린이들은 누구든 참가할 수 있으며, 우수작을 뽑아 전시회도 가질 예정이다. 미술재료는 수요어린이 예배부에서 준비한다. 자세한 문의는 교회 사무국으로 하기 바란다.

### 금주의 성구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1-2)

But now, this is what the LORD says—he who created you, O Jacob, he who formed you, O Israel: "Fear not, for I have redeemed you; I have summoned you by name; you are mine.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and when you pass through the rivers, they will not sweep over you. When you walk through the fire, you will not be burned; the flames will not set you ablaze.

(Isaiah 43:1-2 [NIV])

홍해작전을 준비하며...

# 홍해작전 개전을 준비하며...



김영준 장로(2005홍해작전 참모장)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민족과 국가, 가정과 사회, 개인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성난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 서울교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운동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기회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5 홍해작전 주제는 "아버지여 우리를 위로하소서" (고후 1:3)이다. 이종운 목사님의 신령한 말씀과 홍해작전 준비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산적한 문제를 믿음으로 응답받으려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최선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뜨거운 눈물로 무엇이 나의 위로임을 아버지께 아뢰자. 우리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의 위로, 응답을 입어 남은 여성과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의 영광을 보게 하자. 그 동안 서

울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설리를 수 없이 체험한 우리야닌가?

피곤한 영육이지만,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만한 귀한 믿음과 정성을 보이자.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있음을 증명하자. 홍해의 대장정 속에 씩씩한 용사가 되도록 핍계와 계으름으로 실족하지 말자.

개전을 앞두고 남은 며칠이라도 영성을 점검하고 다짐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홍해작전에 임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전의 예배당 헌당과 서울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 쓰임

받도록 말씀과 기도로 내 영육

의 가사를 뽑아버리고 온 교

회가 일어나 승리의 개가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 드리

자.



홍해작전을 기다리며

# 젓먹이를 부르시어...

머슴 집사(11교구)

제가 홍해작전을 처음 대한 때는 1988년, 이종운 목사님께서 이전에 목회하시던 교회에서였습니다. 그 해는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고, 개인적으로는 둘째 오빠가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믿음이 아직 어렸던 저는 홍해작전은 믿음이 훌륭한 분들이나 참여하는 교회의 행사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기에 집도 너무 멀었습니다. 그런데 큰 시누님의 간곡한 권면이 있었고 한편으론 오빠를 위해 새벽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새벽마다 첫 번 버스도 아니면 택시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집집마다 승용차가 흔하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이 저처럼 애를 쓰며 홍해작전에 참여한 줄 압니다. 어느 날은 힘써 갔는데 예배가 거의 끝날 때도 있어서 속이 상해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첫 해의 홍해작전이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사람의 물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벽 여명에 교회를 향해 굽이굽이 행진하였고, 그 큰 예배당이 꽉 차고 복도까지 빈 자리가 없었는데 그 무리 안에 내가 있다는 사

실이 참으로 가슴 벅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첫 번 홍해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 젓먹이였던 제게 처음으로 믿음의 여 주셨습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둘째 오빠는 영영 회복하지 못했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가족을 예수님께 인도하였고, 인간적인 바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큰 진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시기에 때론 기도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기도하도록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심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의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올해도 홍해작전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합니다.

홍해작전을 준비하며...

# 고등부학생들이 부모님들을 초청합니다



김대호 장로 (고등부 부장)

살롬!

어느덧 아름다운 꽃의 계절이 지나고 자연만물이 성숙해가는 초여름의 날씨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만물이 아름답게 성숙되어 가듯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마음도 아름답게 성숙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러한 부모님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이번 29일(주일) 1부 예배 후 서울교회 고등부(601호실)에서 고등부 친구들이 부모님들을 초청하여 고마움에 감사하는 자그마한 행사를 준비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참석하여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가는 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

# 널 사랑하는 이유

A letter from Jesus Christ our Lord!

안승민 (청년부 76포토)

내게 널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었지 때론 너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는 날 보면서 너는 나의 한없는 사랑을 의심했었지

널 위해 내 전부를 줄 수 있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난 항상 너만을 원했어 내 지극히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너의 모든 슬픔과 실패를 안아주기 위해서...

널 사랑하기 위해서 난 내 모든 것을 버렸어 조롱과 핍박 속에 내 몸이 찢겨져가도 오직 내 눈에 널 잃는 게 싫어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야 그저 널 아끼며 널 원해 그제 나의 사랑이고 내가 그토록 널 사랑하는 이유야

내 피로 얻은 널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너는 내안에서 영원히 다시는 깨지지 않을 영원한 삶 그 약속 위에서 사랑할거야



만민에게 전도

# 짐을 내려놓으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박미영 집사(1교구)

신앙도 없이 신앙인처럼 28년 동안 교양 차원에서 교회를 잘못 다니던 지난날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시대, 건강, 경제 문제로 남들보다 무척 사는 게 힘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아무 보람도 없이 헛고생만 했구나, 하나님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원망했던 것은 결국 나의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아이의 교육을 위해 이곳 대치동으로 이사를 왔고, 큰 교회를 모두 다녀보고 천천히 교회를 정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어느 날 70인 전도대원의 축호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마음에 결정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른 교회는 한 번도 못 가보고 서울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후 다락방장님이 계속 전화를 해 주셔서 다락방 예배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속에서 서서히 변화가 생겨서 예배 때마다 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꼭 저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 같고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에 오면 너무 좋고, 만나는 교인들이 남 같지 않아 만날 때마다 반가워 먼 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수요예배에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고 주일 찬양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찬양예배에 가려는 나를 보고 '뭘 하루에 교회를 2번씩이나 다니냐?' 라고 싫어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가족의 영혼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아이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설득 했지만 아이는 꿈쩍도 안 하더니 하루는 아빠가 교회 다니면 자신도 다니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일 아침 남편에게 아이의 이야기를 했더니 "예배가 몇 시야?" 하는 거였습니다.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난생 처음 교회에 나와 등록하고 같은 날 새가족반도 시작하여 수료하고, 지금은 요리문답부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교회에 다닌 뒤로는 기도

한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얼마 후 드디어 등록하였습니다.

70인 전도대의 전도를 받았던 제가 지금은 교육을 받고 70인 전도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가 있으면 같이 다니자"던 친구를 서울교회로 인도하고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또 아이의 공부를 돌봐주는 선생님 내외에게도 전도를 하여 집 근처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전도, 내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았던 단어였지만 지금은 전도가 내 삶의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고, 말씀처럼 내게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던 짐을 내려놓으니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서울교회에 와서 넘치는 하나님 사랑과 기도응답을 받은 요즘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만민에게 전도

# 고등부 전도왕을 만나다



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지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17살 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지금까지 10여 명이 넘는 길 잃은 양을 주님께 인도한 고등학생의 모범은 그래서 더욱 감동스럽다. 지난 3월 고등부에서 전도왕으로 선발돼 하늘에서는 천류관을, 교회에서는 푸짐한 상품을 받게 된 고등부 1학년 송한영 학생을 만났다.

# 전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중2때부터 학교친구나 어릴 적부터 알던 친구들을 한명씩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 믿지 않는 친구에게 함께 교회가지고 말을 꺼내기 어려웠을 텐데요.

- 평소에 부모님께서도 전도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할 수 있는 한 전도는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도에 대해 부담감은 별로 없습니다.

# 친구들에게 교회가자고 어떻게 설득하나요?

-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교회 다니면 좋은 점을

소개했습니다.

# 전도는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전도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요한 일이고, 친구는 구원받는 축복된 일이라 생각해서 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전도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맨 처음에 같이 가자고 말은 건냈는데 그 친구가 나 올지 안 나올지 고민될 때요.

# 전도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한마디 부탁해요.

-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낸 친구를 보면 교회에 안 가겠다는 마음이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에게 한번 말을 건네 보세요. 전도한 친구가 교회에 나오면 재미도 있고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시니까요.

송한영 학생의 전도비결은 결국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다. 신앙생활도, 학업에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송한영 학생의 모습이 많은 이의 눈앞을 밝히는 불빛이 되길 기대해본다.

고은실(편집부)

## 2005년 봄 시즌 제3회 화요정오음악회



박준운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수료
- 영재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
- 제2회 장천콩쿨 1등입상
- 덴마크 오덴체 콩쿨 등 국제 콩쿨 최연소 참가
- 한국예술종합학교 3학년 재학중
- 지구촌교회 오르가니스트

등장

- 수상: 김민철(청년부 7교구, KBS기자) 한국기자협회 선정 "이달의 기자상" 수상
- 개업: 김영주 집사(한의사) 대치동 985 우성상가 북경한의원 개업
- 이사: 김정길 성도 이영희 권사(5교구) 관악구 남현동 한일(T. 3471-7579)
- 주간식당 봉사: 에스더어전도회(5월22일) 한나어전도회(5월 29일)
- 금주의 식사제공: 최정환 성도 음금자 집사 가정 - 봉사에 감사하며 - 이을동 집사 김영정 집사 가정 -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 ) · 중국인터넷방송 - ( <a href="http://www.c-highway.com">http://www.c-highway.com</a> )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해외에서 강의와 집회를 인도하시는 이중윤 목사의 건강과 영성을 위해
2. 6월6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2005홍해작전에 은혜받고 승리하도록
3.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4. 세계를 교구로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되도록
5. 북한의 핵문제 전쟁없이 해결되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